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가상준** · 김재신*** · 임재형****

■ 목 차 ■

- | | |
|--------------------------|----------------------------|
| I. 서 론 | III. 한국 내 소수자에 대한 혐오감 및 관용 |
| II. 한국사회 내 소수자에 대한 선행 연구 | IV. 결 론 |

● 논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과 불안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에 대해 갖는 혐오감과 관용 수준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첫째, 응답자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집단은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순이었다. 둘째, 혐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신뢰가 낮고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혐오감이 높았고, 일반적 신뢰가 낮고 연령이 낮을수록 조선족에 대한 혐오감이 높았으며, 일반적 신뢰가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이 높았다. 셋째, 혐오집단에 대한 관용수준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용수준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에 대한 관용수준보다 높았다.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413-B00004).

**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 교신저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용수준이 가장 낮았는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 한국사회 기존 구성원들의 시각에서는 자신들과 다른 외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제노포비아(xenophobia : 외부인 혐오증)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사회가 당면하게 될 문제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혐오감, 관용

I. 서 론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는¹⁾ 한국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짧은 시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사회의 모습과 저숙련 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많은 외국인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또한 같은 한민족으로서 중국 사회의 조선족, 그리고 북한 사회의 어려움에서 벗어난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노동시장과 정치사회적 자유를 찾아 민족과 언어의 동질성이 있는 한국사회로 발을 향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²⁾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등 새로운 한국인들이 증가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국가, 언어, 민족, 문화 등을 달리하는 외부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 1) 국내 거주 조선족은 외국인 노동자에 포함되고 있지만 조선족은 한민족이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공통점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과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2) 다문화 가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히 늘어가는 것은 과거 단일민족의 전통을 강조했던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³⁾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새로운 외부인들이 한국사회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은 차별적 포섭/배제, 동화, 다문화라는 Castle과 Miller(2003)가 제시한 세 범주를 혼합하여 쓰고 있는 상황이다.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교육받았던 내국인들에게 있어 외부인들의 증가 및 이들에 대한 정책의 혼선은 혼란함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국인들은 여러 인종 집단이 공존하는 현재 사회에서 부적응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김혜숙 외 2011), 외부인들을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다수인 한국인과 한국으로 유입된 소수인 외부인들 간 나타나는 갈등이다.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체류하면서 저지르는 범죄 및 사회적 문제, 나아가 현실문제로 인해 내국인들의 혐오감이 커지면서 형성되는 갈등이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많아지고 이들이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증대되고 있고 적극적인 법적 대처 등을 요구하면서 이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두 번째 갈등은 한국사회의 외부인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서 외국인 노동자 간, 조선족 간, 북한이탈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는 한국사회에 들어와 한국사회의 상이한 문화와 그들의 문화와의 차이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 구성원 간의 갈등이 범죄로 연결되고 구성원 간 조직화가 이루어져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외부인들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과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용은 어느 수준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현재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정책은 민족이라는 기준을 달아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순으로 정책의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설동훈 2007; 이종두·백미연 2012), 실제 이들

3) 다문화 사회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문화에 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김관준 2013: 208)를 의미한다.

에 대한 한국인들의 혐오감 및 관용수준도 이에 상응하여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갖는 집단은 누구이며 어떤 요인들이 혐오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치적 관용수준은 어떠한지 다른 집단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및 관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앞으로 이들의 한국사회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특수성, 즉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국가통합 정책을 강조했으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경험이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기에(이종두·백미연 2012), 외부인들과의 갈등해결은 쉽지 않은 과제일 수밖에 없다.

II. 한국사회 내 소수자에 대한 선행 연구

1. 한국 내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

한국사회 내 소수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과 같이 같은 민족이지만 한국인과는 구분되는 외부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증가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권수현 2011; 김혜숙 외 2011; 원숙연·박진경 2009).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혐오감, 편견 등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호감도가 일관되게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선족이었고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김혜숙 외 2011; 전우영·조은경 2000). 이는 한국인들은 2세의 어머니를 중시하는 풍토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통합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에 선

행 연구를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수현 2011; 조용관 2004). 물론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여부 그리고 접촉 관계에 따라 이들에 대한 태도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손애리·이내영 2012). 구체적으로 보호경찰관 등 북한이탈주민과 감시-피감시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전우택 외 2000), 이들을 한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같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정진경 2005). 이에 더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연민의 정과 부정적인 태도가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영수 1998; 정기선 1998; 양계민·정진경 2005).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성별, 연령, 직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 개방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진 외 2010).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혐오감과 편견은 이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 한국사회로 이주해왔지만, 사회적, 문화적 이질감과 언어 및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소외계층으로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이들에게 가지는 편견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선희 2011; 김영만 2005; 민영 2012; 박윤숙·윤인진 2007; 박채순 2011; 윤인진 2007). 이에 더하여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사회 적응에 혼란을 경험하는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특히 학력결손 현상이 심각하며 학교에 진학한다 해도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윤숙·윤인진 2007).

둘째, 중국 공민이면서 조선족이라는 이중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조선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지는 않지만, 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사회적 차별감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정은 2013).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이 가장 가깝고,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순서로 가까운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중국인 등의 순이었으며, 몽골인과 서아시아인이 가장 거리감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진 외 2010).

한편, 조선족은 한국에서 3D업종, 즉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자신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열악한 생활을 해온 한국인들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인들의 무지(無知)로부터 받는 차별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증언하고 있다(이정은 2011).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인들이 조선족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은 비록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차별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정은 2013). 특히 조선족의 법적·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의 재외동포이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의 조선족은 외국인 노동자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곽재석 2010; 박우 2011; 설동훈 2004; 윤황·김해란 2011).

그런데 조선족이 한국사회 내의 다른 소수자 집단과 다른 점은 종교단체와 함께 ‘동포’로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교회의 지원을 받은 서울조선조교회를 중심으로 약 2,300여 명의 조선족이 단식농성을 전개하였으며, 2003년 11월 대통령이 농성장을 방문하였고,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조선족과 고려인들은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되었다(박우 2011; 이정은 2013). 이에 따라 불법체류 조선족이 구제되었으며, 이후 합법적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족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른 집단이 되었으며, 한국인-재외동포-외국인 노동자라는 제도적 층화 속에 놓이게 되었다(박우 2011: 257).

셋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및 수용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최근에 와서 개방적,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미국사람들과 비교하여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김순양 외 2008; 서운석 2011).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 외 2010: 89).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편견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과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나이든 사람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낮은 사람들이 편견이 강했다(박수미·정기선 2006).

특히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3D업종' 기피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순양 외 2008).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직장 바깥의 사회생활에서의 배제로 구분해보면 먼저, 직장생활 측면에서 이들 상당수가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직장이동이 어렵고, 근로조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며, 일부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직장 바깥에서의 이들은 대부분은 제대로 연휴를 즐기지 못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상당수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취미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순양 외 2008).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은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병주 2012).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범죄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차별에서 찾고 있다(이상현 1999; 신동준 2012). 대표적으로 한국식 문화의 일방적 강조, 자국에 대한 모독, 피부색에 대한 모독, 임금체불, 성희롱, 빈민국에 대한 무시, 노동의 강요 등에 의해 축적된 갈등과 불만들이 범죄에 빠지기 쉽게 한다는 것이다(이상현 1999: 216).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범죄는 첫째, 입국을 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 혹은 변조하는 것에서부터, 둘째,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마약 밀매, 성매매, 성매매알선, 위조지폐 유통 등과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 셋째, 절도, 살인, 강도, 폭행, 사기, 성폭행 등 형법상 범죄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의 수준이 점차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종열 외 2013: 123-124).

특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외국인 범죄를 유발하며, 외국인 범죄는 결국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외국인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함은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신동준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국인 범죄통계를 분석해 보면 최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와 두려움은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신동준 2012: 183).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및 동성애자 등 여러 소수자 집단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동성애자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높게 나왔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 고정관념을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지나친 보상을 기대한다’는 항목,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항목이 제일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김상학 2004: 186-188). 반면, 이들 집단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감정을 측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나타내는 사회적 거리감도 북한이탈주민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상학 2004: 189-190). 이에 더하여 한국인들이 가지는 가치가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북한 사람 및 영호남사람 등의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지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영호남 사람에 대해서보다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및 북한사람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숙 2007).

2. 한국 내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여러 연

구들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 이념성향, 권위주의성격, 현실갈등인식 등 다양한 요인들을 언급하고 있다(가상준 외 2010; 김혜숙 외 2011; 박수미·정기선 2006; 양계민 2009; Bobo and Licari 1989; Nunn *et al.* 1978; Stouffer 1955; Sullivan *et al.* 1981). 먼저, 사회경제적 변수 중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소수자에 대해 낮은 편견적 태도를 보였고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박수미·정기선 2006).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타집단에 대해 더 포용적이며,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보다 다른 집단과 가치에 대해 자유롭게 개방적이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리사회와 다른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Sullivan *et al.* 1981). 소득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외부 집단으로부터의 위협을 덜 느껴 그들에게 혐오감을 덜 느끼고 높은 수준의 관용을 보일 수 있다(Sullivan *et al.* 1981). 이념성향이 보수적인 집단은 진보적인 이념성향의 집단에 비해 타집단과 타집단이 갖는 가치에 대해 배타적이며 타집단이 갖는 잠재적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과장되게 지각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수적일수록 외부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수 있다(McClosky 1964; Sullivan *et al.* 1981).

다음으로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다(Adorno *et al.* 1950; Altemeyer 1998;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은 강한 사람에게는 복종, 순종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지배적, 공격적으로 대하는 성격특성을 의미하며, 권위주의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타집단에 대해 편견이 강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양계민 2009). 또한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느껴질 때 타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와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Aronson and Gonzalez 1988; Olzak and Nagel 1986). 반대로 한 사회내 사람들간의 신뢰가 높을 경우 타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심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 사회 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다고 믿는 한 그 사회에 비합리적이고 위협적인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다수의 권력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Sullivan and Transue 1999).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타집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권위주의 성격특성이 강할수록,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낄수록, 일반적 신뢰가 낮을수록 타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한국 내 소수자 현황 및 소수자 관련 범죄 현황

〈표 1〉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2013년 12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2만 6천여 명이 국내에 입국했으며, 157만 6천여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

〈표 1〉 연도별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북한이탈주민	12,281	15,084	17,998	20,400	23,106	24,608	26,122 (잠정)
외국인전체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중국 (조선족포함)	503,427	556,517	555,082	608,881	677,954	698,444	778,113
조선족	328,621	376,563	377,560	409,079	470,570	447,877	497,989
미국	112,268	117,986	122,659	127,140	132,133	130,562	134,711
베트남	71,074	84,763	90,931	103,306	116,219	120,254	120,069
일본	50,873	51,763	47,718	48,905	58,169	57,174	56,081
필리핀	47,813	46,894	45,913	47,241	47,542	42,219	47,514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년도), 『통계월보』 참조.

주 : 체류외국인 수는 각 년도 12월 기준임.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조선족은 49만 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2007년 이후 2011년까지는 매년 약 2,400명에서 약 2,900명 정도씩 증가하다가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1,500여 명으로 증가폭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한의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이 과거에 비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조선족 체류자 수는 2009년 증가폭이 거의 없었고, 2012년에는 오히려 체류자 수가 감소되었다가 2013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의 체류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사람들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 사람들은 증가폭이 거의 없거나 감소하는 등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표 2>에서와 같이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에 외국인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인(조선족 포함)에 의한 범죄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중국인이 범

<표 2> 연도별 내·외국인 범죄단속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범죄합계 (내·외국인포함)	2,284,095	1,965,571	1,932,729	1,989,862	2,472,897	2,519,237	1,954,331
내국인	2,276,922	1,957,258	1,921,308	1,978,046	2,453,038	2,495,819	1,935,262
외국인전체	7,173	8,313	11,421	11,816	19,859	23,418	19,069
중국	2,829	4,565	7,804	6,835	13,292	13,639	10,654
미국	835	745	697	672	865	1,382	1,227
베트남	222	221	279	415	704	1,113	1,777
일본	-	-	140	160	-	-	-
필리핀	215	128	-	203	280	451	324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식범죄통계시스템(<http://crimestats.aimudk.com>) 2014년 2월 검색.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외국인 체류자 수를 고려하여 인구 대비 범죄율을 살펴보면, 중국인 범죄율은 높지 않은 편이며 베트남 체류자에 의한 범죄율과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범죄실태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최영신·강석진·김미선(2012)의 연구에서도 인구대비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원을 살펴본 결과 2011년 기준 몽골, 미국, 캐나다, 러시아, 태국, 파키스탄 순으로 높았으며, 중국은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표 3>에서와 같이 최종별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폭력과 지능범죄 및 절도와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절도와 관련된 범죄는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들어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능범죄는 2007년과 2008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과 2012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표 3〉 최종별 외국인 범죄단속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9,103	9,042	12,657	14,524	20,623	23,344	22,543	26,915	24,379
(전년대비 증감,%)	48.2	-0.7	40	14.8	42	11.6	-3.4	19.4	-9.4
살인	60	42	72	54	85	103	83	103	87
강도	157	124	107	118	133	260	221	157	188
강간	92	94	120	176	178	198	255	308	355
절도	825	821	971	1,213	1,343	2,001	1,741	1,766	1,682
폭력	2,424	1,919	2,483	3,369	4,940	5,322	5,885	7,830	8,408
지능범	1,965	3,340	6,229	5,685	7,472	4,792	4,487	3,549	3,187
마약류	218	152	73	231	694	778	720	243	233
기타	3,362	2,550	2,602	3,678	5,778	9,890	9,151	12,959	10,239

자료 : e-나라지표(www.index.go.kr) 2014년 2월 검색.

있다. 반면, 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강간 범죄도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

III. 한국 내 소수자에 대한 혐오감 및 관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 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관용수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실시한 ‘관용과 신뢰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조사는 2013년 5월말부터 6월초 사이에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추출방법은 성별, 거주지, 연령 요인을 비례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표 4〉에서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한국 내 소수자에 대한 혐오수준이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했다. 혐오수준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집단들에 대해 평소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10점 사이에서 말씀해주십시오. 매우 싫어하는 집단이면 0점, 중립이면 5점, 매우 좋아하는 집단이면 10점을 말씀해주십시오.”라고 질문했고, 그 응답을 역산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혐오수준이 높게 나오도록 산출했다.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세 집단 중 응답자가 가장 싫어하는 집단은 조선족이었으며($M=5.50$, $SD=2.28$),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M=4.60$, $SD=2.12$), 북한이탈주민($M=4.53$, $SD=2.35$) 순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각 소수자에 대한 혐오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젊은 세대일수록 조선족을 더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혐오수준에 있어서 연령별 차이는 각각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에 따라 월소득이 100만원에서 299만원사이인 응답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더 혐오했으며, 북한이탈

주민, 조선족 혐오수준에 있어서 소득별 차이는 각각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성향인 응답자가 조선족을 더 혐오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혐오수준에 있어서 연령별 차이는 각각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 교육수준별 차이는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한국 내 소수자 혐오감 수준

변 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전체		4.53(2.35)	5.50(2.28)	4.60(2.12)
성별	남 자	4.44(2.48)	5.49(2.45)	4.63(2.18)
	여 자	4.63(2.20)	5.51(2.08)	4.57(2.06)
	<i>t</i>	1.29	.14	-.51
연령별	19~29세	4.82(2.35)	6.24(2.55)	4.52(2.13)
	30대	4.65(1.97)	5.66(1.99)	4.83(1.92)
	40대	4.60(2.13)	5.41(2.17)	4.56(2.07)
	50대	4.41(2.37)	5.18(2.33)	4.63(2.13)
	60대 이상	4.29(2.74)	5.17(2.19)	4.48(2.31)
	<i>F</i>	1.51	6.77***	.76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4.63(3.07)	5.65(2.44)	4.70(2.44)
	고졸	4.47(2.39)	5.31(2.16)	4.57(2.13)
	전문대졸/대재	4.47(2.07)	5.88(2.49)	4.56(2.02)
	대졸	4.62(2.14)	5.48(2.21)	4.61(2.06)
	대학원 재학 이상	4.24(2.08)	5.30(2.34)	4.63(1.92)
	<i>F</i>	.49	1.72	.10
소득별	100만원 이하	4.55(3.02)	5.36(2.33)	4.38(2.41)
	100~199만원	4.71(2.62)	5.51(2.37)	4.86(2.12)
	200~299만원	4.39(2.43)	5.51(2.23)	4.93(2.13)
	300~399만원	4.62(2.02)	5.50(1.97)	4.55(1.97)

변 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소득별	400~499만원	4.29(1.98)	5.69(2.19)	4.85(2.02)
	500~599만원	4.75(2.20)	5.59(2.39)	4.40(2.02)
	600만원 이상	4.33(2.34)	5.16(2.58)	4.12(2.05)
	<i>F</i>	.75	.65	2.62*
이념 성향별	진보	4.57(2.43)	6.01(2.32)	4.55(2.29)
	중도	4.53(2.32)	5.48(2.22)	4.67(2.03)
	보수	4.43(2.28)	5.14(2.19)	4.42(2.07)
	<i>F</i>	.23	7.57***	1.28

〈표 5〉에서와 같이 회귀분석을 통해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독립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이념성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포함했으며, 이와 함께 정치불안, 사회불안, 경제불안, 일반적 신뢰, 권위주의 태도와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들을 포함해서 분석했다. 정치불안은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고, 사회불안은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불안은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불안하다=4”, “다소 불안하다=3”, “별로 불안하지 않다=2”, “전혀 불안하지 않다=1”로 코딩했다. 일반적 신뢰는 “선생님께서는 처음 만난 사람을 어느 정도 믿는 편입니까?”로 질문했고 그 응답을 “매우 믿는 편이다=4”, “믿는 편이다=3”, “믿지 않는 편이다=2”, “전혀 믿지 않는 편이다=1”로 코딩했다. 권위주의 태도는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전통과 권위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 지를 묻고 그 응답을 “매우 그렇다=4”, “대체로 그렇다=3”, “별로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코딩했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혐오수준의 경우 사회불안과 일반적 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낄수록, 사회 내 구성원에 대한 일

반적 신뢰가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더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의 주민의 유입은 한국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조선족 혐오수준의 경우 연령과 일반적 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적고 일반적 신뢰가 낮을수록 조선족에 대한 혐오수준이 높았다. 젊은 세대가 조선족을 혐오하는 것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인데,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조선족에 대한 역사와 한민족에 대한 정서가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소득과 일반적 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소득이 낮고 일반적 신뢰가 낮을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수준이 높았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그들의 임금수준이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될 것이라는 믿

〈표 5〉 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변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성별	.15(.18)	-.04(.17)	-.12(.16)
연령	-.01(.01)	-.03(.01)***	-.01(.01)
교육수준	-.05(.09)	-.07(.09)	.05(.08)
소득	-.03(.03)	-.01(.03)	-.08(.03)**
이념성향	-.03(.04)	-.07(.04)	.01(.04)
정치불안	-.14(.17)	-.00(.16)	-.11(.15)
사회불안	.48(.17)**	.03(.17)	.21(.16)
경제불안	-.16(.15)	.22(.15)	-.09(.13)
일반적 신뢰	-.28(.13)*	-.36(.12)**	-.29(.11)**
권위주의 태도	-.04(.12)	.13(.12)	.17(.11)
상수	5.25(.85)***	6.99(.83)***	5.65(.76)***
R^2	.03*	.06***	.03**

수치는 비표준화회귀계수이며 ()는 표준오차임.

* $p < .05$, ** $p < .01$, *** $p < .001$

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 신뢰는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람일수록 외부인에 대한 신뢰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는 외부인에 대한 혐오감 및 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과 상응하는 결과라 하겠다. 반면, 교육, 성별, 권위주의 태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은 소수자 혐오수준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세 집단에 대한 혐오수준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혐오수준이 높을수록 조선족에 대한 혐오수준이 높았으며($r=.46, p<.00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혐오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수준이 높았고($r=.42, p<.001$), 조선족에 대한 혐오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수준이 높았다($r=.33, p<.001$).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외부인이라는 동일한 틀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소수자 혐오수준의 상관관계

변인	북한이탈주민 혐오	조선족 혐오
조선족 혐오	.46***	
외국인 노동자 혐오	.42***	.33***

*** $p<.001$

〈표 7〉은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세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수준을 한국사회 다른 집단들에 대한 관용수준과 비교분석한 결과다. 응답자에게 한국사회 여러 집단들을 열거하고 그 중 가장 싫어하는 집단을 선택하라고 한 뒤, 그 집단에 대해 1) 정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것, 2) 사회적 제약을 하는 것, 3) 공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관용수준을 살펴보았다. 정치, 사회활동에 대한 관용수준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공공연설, 가두행진, 학교 일일교사 활동에 대해 금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사회적 제약에 대한 관용수준은 공직출마, 핸드폰도청을 금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물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1”, “필요하다=2”, “필요하지 않다=3”, “전혀 필요하지 않다=4”로 코딩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용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공직수행에 대한 관용수준은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 직책을 수행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지 물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동의한다=1”, “동의한다=2”, “동의하지 않는다=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로 코딩했으며, 이를 다시 역산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관용수준이 높도록 산출했다.

분석결과 정치, 사회활동에 대한 관용수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세집단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M=2.40$, $SD=.98$), 조선족($M=2.31$, $SD=.74$), 북한이탈주민($M=2.22$, $SD=.78$) 순으로 관용수준이 높았으며, 전체 집단들 중에서 관용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반미세력이었고 가장 낮은 집단은 종북세력이었다. 사회적 제약에 대한 관용수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세집단내에서 외국인 노동자($M=2.60$, $SD=.82$), 조선족($M=2.58$, $SD=.69$), 북한이탈주민($M=2.46$, $SD=.75$) 순으로 관용수준이 높았으며, 전체 집단 중에서 관용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뉴라이트였고 가장 낮은 집단은 종북세력이었다. 공직수행에 대한 관용수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세집단내에서 외국인 노동자($M=2.33$, $SD=.92$), 조선족($M=1.82$, $SD=.73$), 북한이탈주민($M=1.69$, $SD=.77$) 순으로 관용수준이 높았으며, 전체 집단 중에서 관용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였고 가장 낮은 집단은 종북세력이었다. 마지막으로 세가지 내용에 대한 질문들의 전체평균을 산출한 관용지수(전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세집단내에서 외국인 노동자($M=2.45$, $SD=.70$), 조선족($M=2.21$, $SD=.57$), 북한이탈주민($M=2.11$, $SD=.66$) 순으로 관용수준이 높았으며, 전체 집단 중에서 관용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였고 가장 낮은 집단은 종북세력이었다.

앞선 결과(〈표 4〉)에서 혐오감 수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혐오감이 가장 낮게 나타나 사람들이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보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감을 갖는 집단에 대해 관용수준도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용수준은 외국인 노동

자, 조선족에 비해 가장 낮았다. 즉, 한국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꺼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집단화될 경우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이들이 갖는 정치이념, 가치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 수준은 세 집단 중 중간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혐오감 수준과 비슷하게 낮지만 관용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조선족과 북한이탈주민과 달리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외부인으로 이들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약한 편이며, 집단화에 대한 두려움과 의구심도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에 대한 관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우리사회가 이들에게 포용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으로 외부인들의 유입이 더욱 늘어나 경쟁관계가 형성되거나 위협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우리사회가 이들에 대해 갖는 호감도와 관용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표 7〉 소수자에 대한 관용수준 비교

구분	북한이탈주민 (n=18)	조선족 (n=19)	외국인 노동자 (n=7)	동성 애자 (n=217)	민주 노총 (n=42)	전교조 (n=32)	참여 연대 (n=5)	종북 세력 (n=450)	반미 세력 (n=42)	반공 세력 (n=42)	전경련 (n=31)	뉴라 이트 (n=102)
정치 사회 활동	2.22 (.78)	2.31 (.74)	2.40 (.98)	2.21 (.80)	2.27 (.76)	2.31 (.78)	2.47 (.45)	1.84 (.77)	2.52 (.58)	2.25 (.63)	2.31 (.78)	2.26 (.89)
사회 제약	2.46 (.75)	2.58 (.69)	2.60 (.82)	2.80 (.71)	2.71 (.64)	2.70 (.57)	2.40 (.55)	2.28 (.79)	2.72 (.70)	2.83 (.59)	2.54 (.82)	2.85 (.67)
공직 수행	1.69 (.77)	1.82 (.73)	2.33 (.92)	1.87 (.69)	1.82 (.57)	1.92 (.71)	2.27 (.83)	1.51 (.60)	2.10 (.64)	2.10 (.56)	1.97 (.85)	1.79 (.67)
관용 지수 (전체)	2.11 (.66)	2.21 (.57)	2.45 (.70)	2.23 (.57)	2.22 (.45)	2.14 (.57)	2.38 (.42)	1.81 (.55)	2.41 (.52)	2.37 (.44)	2.20 (.53)	2.23 (.54)

수치는 평균, ()는 표준편차

수치가 높을수록 관용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IV. 결 론

한국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으며, 이 중 중국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매년 천명이상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 이들의 인구증가와 함께 폭력, 강간 등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 대비 범죄율을 살펴보면 내국인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일반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갖는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전국적 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수준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세 집단 중 조선족에 대한 혐오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순이었다. 민족과 문화적 측면에서 동떨어진 외국인 노동자보다 조선족에 대한 혐오감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언론과 미디어에서 비취지는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TV, 영화, 소설, 인터넷 등에서 주로 그려지는 조선족의 이미지는 살인자, 보이스피싱 등 대체로 부정적이며(동포투데이 2014. 2. 28),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조선족에 대한 혐오감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관용은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북한이탈주민 순으로 높아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람들의 혐오수준은 낮은 데도 이들에 대한 관용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고 호감을 갖고 있는 반면,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치, 사회 집단으로 세력이 커져가는 것에는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혐오감의 경우 사회적 불안인식과 일반적 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조선족의 경우 연령과 일반적 신뢰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소득과 일반적 신뢰가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 신뢰가 세 집단에 대한 혐오감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집단으로 인한 갈등을 염려하기 이전에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사회구성원들간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박상필 2000; Fukuyama 1995; Putnam 1993),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는 사회구성원들간의 신뢰가 새로 유입된 외부인 집단과의 갈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사회구성원들간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구성원과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용수준은 전반적으로 볼 때 동성애자, 민주노총, 전교조, 반공세력, 전경련, 뉴라이트 등 한국사회 기존집단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었으며 각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전체 관용수준에서 중북세력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한국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조선족의 경우 혐오감은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보다 높았으나 관용수준은 그리 낮지 않은 편으로 민주노총, 전경련에 대한 관용수준과 비슷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관용수준은 북한이탈주민, 조선족보다 높았으며 다른 비교집단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전국적 규모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 증가하는 외부인, 즉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했다.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 한국사회 기존 구성원들의 시각에서는 자신들과 다른 외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제노포비아(xenophobia : 외부인 혐오증)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한국사회가 앞으로 당면할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김용신 2012; 이윤구 2010; 황은영 2014).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외부인 집단을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과 베트남,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태도를 세분화하여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어떤 집단이 어떤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가상준 · 윤종빈 · 유성진(2010). “한국사회 정치관용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UGHTOPIA』 25-3: 273-298.
- 곽재석(2010). “조선족 중국동포의 인정투쟁.” 『미드리』 4: 2-5.
- 권수현(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20-2: 129-153.
-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7: 169-206.
- 김선희(201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패러다임 전환의 요청과 인문-융합적 패러다임.” 『통일인문학논총』 52: 181-205.
- 김순양 · 이지영 · 남경선(2008). “저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아태연구』 15-2: 1-30.
- 김영만(2005).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자(새터민)들의 적응실태: 무엇이 그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학술정보.
- 김영수(1998).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탈북자관 조사.” 『전략논총』 10: 125-126.
- 김용신(2012). “제노포비아에서 포용으로: 다수로부터의 하나.” 『비교민주주의연구』 8-2: 163-182.
- 김종열 · 김창호 · 하정훈(2013).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학회지』 9-1: 113-135.
- 김관준(2013).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기여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와 다문화』 3-2: 207-237.
- 김혜숙(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혜숙 · 김도영 · 신희천 · 이주연(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동포투데이(2014. 2. 28). 한국 스크린에 비친 조선족의 이미지.
http://dspdaily.com/n_news/news/view.html?no=2679 2014년 2월 검색
- 민경환(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 민영(2012). “이주 소수자의 미디어 이용, 대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적대적 지각: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탐색.” 『한국언론학보』 56-4: 414-481.
- 박상필(2000).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2, 121-138.
- 박수미·정기선(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5-26.
- 박우(2011).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91: 241-268.
- 박윤숙·윤인진(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 박채순(201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유입과 적응 실태 연구: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5-2: 63-88.
- 서운석(2011). “외국인 노동자/이민자 수용 태도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한국·중국·미국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4-1: 103-129.
- 설동훈(2002).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200-223.
- 설동훈(2007).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인문연구』 제52권: 125-160.
- 손애리·이내영(2012).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9-3: 5-34.
- 신동준(2012).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4: 183-217.
- 양계민·정진경(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제』 11: 97-115.
- 원숙연·박진경(2011).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3: 201-224.
- 윤인진(2007).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지원 방안.” 『아세아연구』 50-2: 106-182.
- 윤인진·송영호·김상돈·송주영(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어울누리.
- 윤황·김해란(2011).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경제적 사회지위 연

- 구.” 『디아스포라연구』 5-1: 37-60.
- 이명진 · 최유정 · 최선헌(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이상현(1999). 『소년비행학』 박영사.
- 이윤구(2010). “우리나라 제노포비아 실태 및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은(2011). “재중동포 사회의 차이와 소통의 문화정치: 한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의 구성과 교류.” 『민주주의와 인권』 11-3: 213-247.
- 이정은(2013). “조선족 동포들의 민주주의 경험과 실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저항과 개입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9: 305-336.
- 이종두 · 백미연(2012). “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정책.” 『국제관계연구』 17-1: 335-361.
- 전병주(2012).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237-247.
- 전우영 · 조은경(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67-184.
- 전우택 · 윤덕용 · 민성길(2000). “탈북자들과 보호 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보호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4-1: 21-64.
- 정기선(1998).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2-2: 427-448.
- 조용관(2004).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2: 155-184.
- 최영신 · 강석진 · 김미선(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각년도). 『통계월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식범죄통계시스템(<http://crimestats.aimudk.com>) 2014년 2월 검색.
- 황은영(2014). “제노포비아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생들의 인식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e-나라지표(www.index.go.kr) 2014년 2월 검색.
- Adorno, T. W., E. Frenkel-Brunswik, D. J. Levinson, and R. N. Sanford(1950).

-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Y: Norton.
- Altemeyer, B.(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30, pp.47-92). San Diego: Academic Press.
- Aronson, E., and A. Gonzalez(1988). Desegregation, Jigsaw, and the Mexican Experience. In P. A. Katz and D. A. Taylor(Eds.), *Eliminating Racism: Profiles in Controversy*(pp.301-314). New York: Plenum.
- Bobo, L., and F. Licari(1989). "Education and Political Tolerance," *Public Opinion Quarterly*. 53-3: 285-308.
- Castles, S., and M. J. Miller(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Press.
-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Nunn, C. A., H. J. Crockett, and A. J. Williams(1978). *Tolerance for Nonconformity*. San Francisco: Jossey-Bass.
- Olzak, S., and J. Nagel(1986). *Competitive Ethnic Rel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Putnam, R. D.(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ouffer, S.(1955). *Communism, Conformity, and Civil Liberties*. NY: New York: Doubleday.
- Sullivan, J. L., G. E. Marcus, S. Feldman & J. E. Pierson(1981). "The Sources of Political Tolerance: A Multivariate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1: 92-106.
- Sullivan, J. L. and J. E. Transue(1999).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of Democracy: A Selective Review of Research on Political Tolerance,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Capita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625-650.

● Abstract

Dislike and Toleran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Chinese, and Foreign Laborers in South Korea

Ka, Sangjoon · Kim, Jaeshin** · Lim, Jae Hyoung****

Korean society has been facing new conflicts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from outsid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Koreans' dislike and toleran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Chinese, and foreign laborers residing in South Korea. Results showed that Korean Chinese were more disliked than foreign labor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 Secon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disliked when generalized trust was low and societal anxiety was high. Korean Chinese were disliked by young people when generalized trust was low. Foreign laborers were disliked by low-income people when generalized trust was low. Third, participants were more tolerant towards foreign laborers than North Korean defectors and Korean Chinese. Participants were the least tolerant towards North Korean defectors, especially disapproving of such people being permitted to run for public office.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Chinese, and foreign laborers have obviously different background; however, Korean people perceive all of them as outsiders. Such negative attitude can be conceptualized as xenophobia, which needs to be examined by future research.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Chinese, foreign laborers, dislike, tolerance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Political & Diplomacy, Dankook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Dankook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Dankook University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4월 08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4월 15일